

유주현 건협 회장, 황영철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면담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 가운데)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영철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자유한국당·오른쪽)과 면담을 갖고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회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해 편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유 회장은 “2020년 SOC 예산에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예타면제사업의 사업비, 체계적인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비

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면서 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영철 예산결산위원장은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회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건설업계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